

## 장성군, 편백 숲 향기와 선비 정신이 깃든 호남의 작은 금강

전라남도 북부에 자리한 장성군은 축령산 편백숲의 청정 자연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의 선비 정신이 어우러진 힐링과 문화의 고장입니다. 백양사 단풍의 화려한 절경, 황룡강 노란 꽃잔치의 황홀함, 홍길동의 고향으로 전해지는 낭만까지, 장성군은 자연과 역사, 이야기가 풍성하게 어우러진 전라남도의 숨은 보석입니다.

### 장성군, 어떤 곳인가

장성군은 전라남도 북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담양군, 서쪽으로 영광군, 남쪽으로 광주광역시와 함평군, 북쪽으로 전라북도 정읍시와 고창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총 면적 약 518km<sup>2</sup>에 인구 약 4만 5천 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노령산맥의 줄기가 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청정 산간 지역입니다.

장성이라는 지명은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으며, 고려시대에 장성현으로 개칭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호남 유학의 중심지로 발전해 수많은 학자와 선비를 배출했으며, '호남의 작은 금강'이라 불릴 정도로 자연 경관이 수려합니다.

장성의 가장 큰 자랑은 청정 자연환경입니다. 축령산 편백숲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조림지로 삼림욕의 명소이며, 백양사 주변의 내장산국립공원은 가을 단풍의 절경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필암서원은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선비 문화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축령산 편백숲, 천연 치유의 숲

축령산 편백숲은 장성군 서삼면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편백나무 조림지로, 약 100만 평에 달하는 울창한 편백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1956년부터 고 임종국 선생이 황폐한 산을 녹화하기 위해 심기 시작한 나무들이 60년이 넘는 세월을 거쳐 거대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축령산 편백숲은 피톤치드의 보고입니다. 편백나무에서 뿐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는 스트레스 해소, 면역력 강화, 심폐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숲 안에 들어서면 상쾌한 편백 향기가 온몸을 감싸며, 맑은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숲 안에는 다양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치유의 숲길, 편백나무 숲길, 삼나무 숲길 등 취향과 체력에 맞게 코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곳곳에 쉼터와 전망대가 있어 여유롭게 삼림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편백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아래를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축령산 산림욕장에서는 전문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숲 해설사와 함께하는 산림치유 프

로그램, 명상과 요가 프로그램 등이 있어 더욱 깊이 있는 치유 체험이 가능합니다. 가족, 연인, 단체 모두에게 인기 있는 힐링 명소입니다.

### **백양사, 천년 고찰의 단풍 절경**

백양사는 장성군 북하면 백암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 고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입니다. 632년 백제 무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며, 원래 이름은 백암사였으나 흰 양이 설법을 들었다는 전설에 따라 백양사로 개칭되었습니다.

백양사의 가장 큰 매력은 가을 단풍입니다. 내장산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백양사 주변은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단풍 명소로, 매년 가을이면 붉은 단풍이 산 전체를 물들입니다. 특히 쌍계루와 연못, 그리고 애기단풍이 어우러진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아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습니다.

백양사 경내에는 여러 문화재가 있습니다. 극락보전, 대웅전, 사천왕문 등 조선시대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소요대사 부도와 비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내를 거닐며 천년 고찰의 역사와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백양사에서는 템플스테이도 가능합니다. 산사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참선과 다도 체험을 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 단풍 시즌의 템플스테이는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 **필암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은 장성군 황룡면에 위치한 조선시대 서원으로, 2019년 '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호남 유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 선생을 배향하기 위해 1590년에 건립되었으며,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입니다.

하서 김인후는 조선 중기의 대학자로, 인종의 스승이었습니다. 성리학에 정통했으며, 인종이 일찍 승하한 후에는 관직에 나가지 않고 학문과 후학 양성에 전념했습니다. 그의 학문과 절의는 호남 유학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필암서원은 조선시대 서원의 전형적인 건축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확연루, 청절당, 우동사 등 건물들이 자연 지형과 조화를 이루며 배치되어 있으며, 서원 앞 연못과 주변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서원 건축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서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전통 의례와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제향 의식과 함께 선비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유학의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 **황룡강, 노란 꽃잔치의 향연**

황룡강은 장성군을 관통해 흐르는 하천으로, 봄이 되면 강변을 따라 노란 유채꽃이 만발

해 황홀한 꽃잔치가 펼쳐집니다. 최근에는 하천 정비와 함께 꽃길 조성 사업이 진행되어 전국적인 꽃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황룡강변에는 유채꽃뿐 아니라 코스모스, 해바라기, 메밀꽃 등 계절마다 다양한 꽃들이 피어납니다. 봄에는 노란 유채꽃이, 여름에는 해바라기가,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핑크뮬리가 강변을 수놓아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매년 봄에는 황룡강 노란꽃잔치 축제가 열립니다. 끝없이 펼쳐진 유채꽃밭 사이를 거닐고, 포토존에서 인생샷을 남기며, 다양한 문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연인과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황룡강변에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며 꽃 향기를 맡는 것은 장성 여행의 묘미입니다.

### **홍길동 테마파크, 의적의 고향**

장성군은 조선시대 의적 홍길동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균의 소설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이 장성 출신이라는 기록이 있어, 장성군에서는 홍길동을 테마로 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길동 테마파크는 장성군 황룡면에 위치해 있으며, 홍길동전의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활빈당 마을, 홍길동 생가, 의적 체험관 등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인기입니다. 어린이들이 홍길동 이야기를 배우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매년 홍길동 축제가 열려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홍길동 퍼레이드, 활쏘기 체험, 전통 무예 시범 등 홍길동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문화 공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은 서자 차별에 반발해 활빈당을 조직하고 부패한 관리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에게 나눠주는 의적으로 그려집니다. 조선시대 신분제의 부당함에 저항한 홍길동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 **입암산성과 역사 유적**

입암산성은 장성군 북일면 입암산에 위치한 산성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벽 일부가 남아 있으며, 성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좋아 등산과 함께 역사 탐방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입암산은 해발 654m의 산으로, 기암괴석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명산입니다. 정상에 오르면 장성 일대와 멀리 노령산맥의 산줄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등산 코스가 다양해 초

보자부터 숙련자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장성에는 필암서원 외에도 고산서원, 봉암서원 등 여러 서원이 있어 호남 유학의 전통이 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장성은 많은 학자를 배출한 학문의 고장으로, 선비 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장성향교도 볼거리입니다. 조선시대 지방 교육 기관으로, 대성전과 명륜당이 잘 보존되어 있어 유학 교육의 현장을 엿볼 수 있습니다.

### **장성 사과와 딸기, 달콤한 특산물**

장성 사과는 장성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청정 환경과 큰 일교차 덕분에 당도가 높고 맛이 뛰어납니다. 특히 북하면 일대에서 재배되는 사과는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며, 가을 수확철에는 사과 따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장들이 많습니다.

장성 딸기도 명성이 높습니다. 겨울과 봄에 수확되는 딸기는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하며, 싱싱한 상태로 전국에 출하됩니다. 딸기 농장에서 직접 딸기를 따서 맛보는 체험은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인기입니다.

장성에서는 다양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신선한 사과, 딸기, 쌀, 잡곡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 직접 만든 가공식품도 인기입니다.

### **장성호 수변길**

장성호는 장성군 장성읍에 위치한 인공 호수로, 1976년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되었습니다. 호수 주변으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장성호 수변길은 호수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로, 총 길이 약 5km에 달합니다. 호수와 주변 산세가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우며,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봄에는 벚꽃이, 가을에는 단풍이 수변길을 장식합니다.

호수에서는 카누와 카약 체험도 가능합니다. 맑은 물 위에서 패들을 저으며 호수를 둘러보는 것은 색다른 경험입니다. 낚시도 인기 있는 레저 활동으로, 봉어와 잉어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장성호 주변에는 펜션과 캠핑장도 있어 숙박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 **장성의 맛과 멋**

#### **한우와 흑돼지**

장성 한우와 흑돼지는 청정 환경에서 사육되어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 장성 시내에 한우와 돼지고기 전문 식당들이 있어 신선한 고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 산채정식

산간 지역답게 산에서 채취한 나물로 만든 산채정식이 별미입니다. 취나물, 고사리, 더덕, 도라지 등 다양한 산나물 반찬이 푸짐하게 나오며, 건강하면서도 맛있습니다.

## 장성 막걸리

장성에서 빚는 전통 막걸리도 별미입니다. 지역에서 재배한 쌀로 만든 막걸리는 맛이 깊고 향이 좋습니다. 산채정식이나 두부 요리와 함께 즐기기 좋습니다.

## 두부 요리

장성의 맑은 물로 만든 두부도 유명합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손두부와 두부 요리를 맛 볼 수 있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 장성의 사계절

봄의 장성은 꽃과 함께 시작됩니다. 황룡강변에 유채꽃이 만발하고, 백양사 주변에 산벚꽃이 피어납니다. 노란꽃잔치 축제가 열리며, 따스한 봄바람을 맞으며 꽃길을 걷기에 좋습니다.

여름의 장성은 녹음이 우거집니다. 축령산 편백숲에서 시원한 삼림욕을 즐기고, 장성호에서 수상 레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숲에서 더위를 피하기에 최적입니다.

가을의 장성은 단풍의 절정입니다. 백양사와 내장산의 단풍이 화려하게 물들고, 사과와 농산물 수확 시즌을 맞아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가을 장성은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단풍 여행지입니다.

겨울의 장성은 고요합니다. 눈 덮인 축령산 편백숲의 설경이 운치 있고, 백양사에서 조용히 템플스테이를 즐기기 좋습니다. 따뜻한 산채정식으로 몸을 녹이며 겨울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장성의 교통과 발전

장성군은 호남고속도로와 호남고속철도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KTX 정읍역과 가까우며, 장성IC를 통해 광주와 전주, 서울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약 30분, 서울에서 약 3시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장성군은 청정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힐링과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축령산 편백숲을 중심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생태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환경과 교통 인프라를 갖춘 도시들이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남권의

경우 김해 안동 에피트처럼 교통 인프라와 생활 편의시설, 쾌적한 주거환경이 잘 갖춰진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편리함과 자연환경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다양한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자신에게 맞는 터전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 장성 여행 실용 정보

### 교통편

장성은 호남고속도로 장성IC에서 접근 가능하며, 광주에서 약 30분, 서울에서 약 3시간 소요됩니다. 장성버스터미널에서 광주, 전주, 서울 등지로 버스가 운행되며, 장성역에서 무궁화호 열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숙박

장성군에는 펜션, 민박, 모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축령산 편백숲 인근과 백양사 주변에 숙박시설이 있으며, 백양사에서는 템플스테이도 가능합니다. 장성호 주변에는 캠핑장도 있습니다.

### 장성군으로의 초대

장성군은 편백숲의 청정 자연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선비 정신, 백양사 단풍의 절경이 어우러진 힐링의 고장입니다. 축령산 편백숲의 상쾌한 피톤치드, 필암서원의 유학적 깊이, 백양사 단풍의 화려함, 황룡강 노란 꽃잔치의 황홀함, 홍길동 이야기의 낭만까지, 장성은 보고 느끼고 쉬어갈 것이 풍성한 곳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편백숲에서 깊은 숨을 쉬고 싶을 때, 단풍에 물든 산사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을 때, 노란 꽃물결 사이를 거닐고 싶을 때, 장성군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남의 작은 금강, 힐링과 문화의 고장 장성군으로 떠나보세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